

언어 영역

Table with 5 columns and 12 rows of numbers and circled numbers for a matching exercise.

/ 어휘 · 어법

1. 연상한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②]

(나)는, 소나기는 요란스럽게 내리지만 땅을 깊게 적시지는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②는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단단한 지식이 쌓였음을 알게 된다는 것을 연상하고 있다.

- ① 달고 맑은 물을 길어 수 있는 우물을 얻기 위해 흙을 파 나가는 과정으로부터 책의 참 맛을 알게 되기까지의 꾸준한 독서 방법을 연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구슬을 색깔별로 케미를 만들어 상자에 담는 것이 많은 구슬을 옮기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로부터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을 내용이나 범주에 따라 정리해 두는 것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임을 이끌어 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추수 이후에 다시 들뜬에 나아가 남아 있는 곡식들을 수습 하면 좋은 양식을 얻을 수 있듯이 책 또한 거듭해서 읽으면 한 번의 독서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적절한 연상이다.

2.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을 보자. '공동체 의식의 형성 촉진'은 상위 항목인 'III. 자원 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I. 자원 봉사 활동의 의의'와는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은 글

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단지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므로, ㉠을 수정하는 적절한 방안으로는 ㉠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I'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 ① '결연을 통한 자원 봉사 활동의 지속성 강화'는 자원 봉사 활동의 의의라기보다 '자원 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III'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② 'II-1, II-2, II-3'의 내용은 자원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맞게 ㉠의 내용도 수정되어야 한다.
③ 자원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원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들을 없애거나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II-1'에서는 자원 봉사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요인으로 '타율적인 봉사 활동 참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가 적절하다.
⑤ ㉠'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은 내용이 모호하므로, '자원 봉사 활동의 활성화'라는 주제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봉사 활동'은 '자원 봉사 활동'으로, '관심'은 '사회적 관심 촉구'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3. 혼동하기 쉬운 어휘의 쓰임 이해 [정답 ③]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부지다', '남의 땀이나 불기 따위를 세게 때리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붙이다'이다. 따라서 ③은 단어들을 적절히 활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① r 조리다 :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국물이 거의 없게 바짝 끓이다.
l 졸이다 : (주로 '마음', '가슴' 따위와 함께 쓰여) 속을 태우다시피 초조해하다.
② r 곤욕 : 심한 모욕. 또는 참기 힘든 일.
l 곤혹 :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④ r 돌구다 : 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
l 돌우다 : 입맛을 당기게 하다.
⑤ r 홀몸 :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l 홀몸 :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

4.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파악 [정답 ⑤]

<보기>의 '(라)-2'를 활용하여 온라인 게임 중독 수준과 폭력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알 수 있지만, (다)에서는 '게임 선택 운제'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규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만 하였으므로, 이 둘을 활용하여 '게임 선택운제'가 시행되면 온라인 게임 중독 수준과 폭력성 사이의 상관관계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5).

- ① '(가)-1'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폭력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을, '(라)-2'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폭력성이 온라인 게임 중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제시하고 있는 심의 결과를 활용하여 아동용 만화 프로그램도 청소년의 유해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학교 주변 유해 업소 및 아동용 만화 프로그램 등의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 자료와 심의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④ '(라)-1'의 대중매체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대중매체가 청소년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사 회

[5~7] 지문 해제

귀인(歸因) 이론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들의 행동의 원인을 제 나름대로 설명하고, 그 설명에 기초하여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데, 이 같은 설명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귀인이라고 한다. 귀인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내부 귀인과 외부 귀인으로 나누며, 대표적인 유형에는 '행위자-관찰자 편향 귀인'과 '자기 고양 귀인'이 있다. '행위자-관찰자 편향 귀인'은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주로 그 사람의 내적인 특성으로 귀인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상황적인 변수들을 더 자주 사용하여 귀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자기 고양 귀인'은 귀인의 동기가 자존감 유지에서 비롯된 경우를 말한다. 지문에서는 '자기 고양 귀인'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심리적 경향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5. 내용의 분석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④]

셋째 문단을 보자. '우리가 어떤 과제를 실패하는 경우나 타인이 성공하는 경우에 우리의 자존감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 귀인을 하는 것이 자존감 유지에 유리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자존감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도피적 충동을 느낀다는 ④는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 ① 마지막 문단에서 '셋째,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②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 같은 내적 요인들이 최소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에게는 긍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

- 다.
③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주로 내부 귀인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는 외부 귀인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이 처한 상황과 그의 행동을 설명할 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때보다 내부 귀인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에 해당하는 심리적 경향이다.

6. 정보의 이해 및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정답 ⑥]

대화5를 보면 A국 대표는 '당신들의 공격은 제국주의적 발상에 나온 것이요.'라며 상대방 행동의 원인을 내적 요인에서 찾고 있으며, B국 대표는 '무슨 소리! 우리는 당신들의 도발에 대해 정당방위를 한 거요.'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원인이 외적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의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A국 대표'는 내부 귀인을, 'B국 대표'는 외부 귀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아들'은 자존감 유지를 위해 자신의 성공이 내부 귀인, 즉 머리가 좋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귀인의 동기가 자존감 유지에서 비롯된 경우를 셋째 문단에서는 '자기 고양 귀인'이라고 설명하였다.

7. 내용 이해를 통한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 [정답 ③]

자기 고양 귀인과 관련하여 사람들의 심리적 경향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으며,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자기가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보기>의 실험에서는 실험 참여자들을 둘로 나누어 한 쪽에는 복권을 임의로 한 장씩 제공하고, 다른 쪽에는 복권을 한 장씩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후 자신이 가진 복권을 팔 경우 받고 싶은 가격을 적어 내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이 복권을 선택한 참여자들의 요구 금액이 임의로 복권을 제공 받은 참여자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자신이 복권을 선택한 참여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복권에 대해 자신이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③이 적절한 반응이다.

고전 시가 + 수필

[8~12] 작문 해제

(가) 김시습, 「소양정(昭陽亭)」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의 시문집 「매월당집」에 실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㉞은 집 근처 작은 소나무를 사람에 비유한 것으로, 이들은 모두 그 나름의 본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제 모습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 중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 ㉡, ㉢이다.

소설

[13~16] 작품 해

채만식, 「는 이야기」

1946년 <해방 문학 선집>에 발표된 작품으로, 한일 합방 이전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 직후 과도기의 사회상을 독특한 풍자적 문체로 표현한 소설이다.

한일 합방이 되던 1920년부터 1917년까지 토지 조사 사업에 의하여 사유권의 확립이라는 근대적 법률이 생겨나고, 농민은 조상 대대의 세습적 토지 점유에서 쫓겨나 소작농으로 전락한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소작지의 경작은 조선 시대보다 더 열악한 계약 조건을 수반하였고,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농지를 빼앗기고 화전민이 되거나 날 풀팔이가 되어야 했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를 지나 광복 후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농민은 토지 분배에서도 철저히 소외당한다. 일인이 놓고 간 땅은 국가가 개입하여 매매하고, 기존의 친일파들은 이것을 기회 삼아 더욱더 기세를 부렸던 것이다. 작가는 이렇듯 나라의 토지 분배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비판을 ‘한덕문’이라는 인물을 통해 풍자하고 있다.

13.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①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잇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附同)이 되어 가지고,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이 산관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와 같은 부분에서 시대적 상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서술상의 논평이 드러나긴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지 않다.

② 제시된 글은 구어체와 전라도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하고 있다.

③ 제시된 글은 ‘한 생원’이라는 인물이 토지와 관련된 경험한 일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④ 제시된 글은 한 생원과 영남이라는 유배 사람과의 대화, 한 생원과 구장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이들 사이의 대립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고 있다.

⑤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등의 시대 상황을 요약한 부분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14.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④

㉠은 글의 내용상 ‘한 생원’이 다짜고짜로 멧것이 자기 것이라며 벌목을 저지하자 ‘영남’이 ‘한 생원’의 행위를 술주정으로 여기며 얄팍히 보고 한 말이다.

㉡은 바로 이어지는 ‘영남’의 대사(‘그 개 밧 같은 소리 인젠 인간치 해두구’)를 통해 ‘영남’이 멧것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한 생원’의 생각에 황당함을 드러내며 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영남’이 강대식으로부터 계약서를 받고 멧것을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밝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은, ‘한 생원’이 ‘구장’을 찾아가 나라가 백성이 차지할 땅(멧것)을 뺏아서 팔아먹었다고 주장하자 ‘구장’이 ‘한 생원’에게 그건 백성의 것이 아닌 일인의 것을 뺏은 것이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 ‘한 생원’이 그건 둘러대는 핑계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㉞은 ‘한 생원’이 ‘원농 김가’에게 속아 눈을 빼앗긴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라가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할 땅을 가져가는 이유를 ‘핑계’로 여긴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㉟은 독립이 됐다면서 나라가 한 일이 고작 백성이 차지할 땅을 뺏아서 팔아먹은 것이라 여기며 자신은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한 생원’이 독립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로 한 말이다.

따라서 ㉞은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이라 할 수 없다.

15. 내용 이해를 통한 추론

정답 ⑥

‘한 생원’이 ㉠처럼 말한 이유는 제시된 글 곳곳에 표현된 ‘한 생원’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통해 추리해 볼 수 있다.

‘한 생원’은 ‘나라가 다 무어 팔라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무얼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엔 일인이 내똥구 가는 내 땅을 저이가 팔아먹으려구 들어? 그게 나라야?’,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무얼 좀 고마운 노릇을 해 주어야 백성두 나라를 믿구, 나라에다 마음을 불이구 살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생원’은 해방이 되면 자신이 일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되던 멧것을 찾는 등 원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을 거라 여겼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멧것을 찾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자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처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 가장 적절한 이유는 ⑥‘해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리라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6.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전반부에 제시되어 있는 ‘한 생원’과 ‘영남’의 대화를 통해서 는, 해방이 되면서 일인(日人)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갔고 혼란한 틈을 타서 일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잇속을 챙기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국가의 존재 의의에 대한 무지가 초래할 수 있는 폐해는 알 수 없다. 국가의 존재 의의

린 한시이다. 이 작품은 김시습이 관동으로 유배하는 중 소양정에 올라 소양강을 바라보며 자연 경치를 묘사하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특히 첫 째 구와 둘째 구의 대비가 일품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나) 조위, 「만분가(萬憤歌)」

작가가 1498년 무오사화로 인해 유배되어 전라도 순천에서 지은 유배 가사이다. 이 작품은 한국 최초의 유배 가사로 알려져 있는데, 「만분가」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이 유배당하게 된 현실에 대한 발분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작가 자신이 사회에 연루되어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유배된 뒤 귀양살이하는 원통함을 천상 백옥경에서 하개로 추방된 것에 비유하고, 옥황상제로 비유된 성종에게 비분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정철(鄭澈)의 <사미인곡 思美人曲>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 이시, 「옥송설(嶽松說)」

집 근처에 있던 작달막한 소나무의 모습이 본연의 모습과는 다른 것을 보고, 이에 대해 곁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은 바를 정리한 설(說)이다. 작은 소나무는 ‘구부러지고 뒤틀려 얽힌 가지가 마치 뱀이 서리가 다투는 듯, 수레 덮개가 활짝 퍼진 듯, 오색실로 만든 술이 감기고 얽힌 듯, 들쭉날쭉 아래로 늘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모습의 소나무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인간이 의도적으로 본성을 왜곡하여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그 나름의 본성을 지니고 제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8. 작품 간의 공통적인 속성 파악

정답 ③

(가)에서는 ‘어느 때에야 세상 그물을 벗어나 / 흥을 타고 여기서 다시 노닐 수 있으리나’에 구체적으로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다)는 마지막 문단 ‘아아,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은 그 나름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자신을 수양하여 본성을 기르고 해를 당하지 않으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만물도 제 모습을 잃지 않을 것이다.’에 구체적으로 글쓴이가 본성을 잃지 않는 삶을 지향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가)와 (다)에는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가)에는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다)의 글쓴이는 집 근처 작은 소나무가 옥실 때문에 자기의 선한 본성을 잃어버리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상에 아첨하며 구차하게 남의 환심이나 사려고 하는 자들과 같다고 말하며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제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9. 작품 속 소재의 기능 이해

정답 ②

(가)의 ‘기러기’는 그것이 내려앉은 모래펄과 함께 자연적 배경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나)의 ‘두견’은 남산 늦은 봄에 이화(梨花) 가지 위에서 밤낮으로 우는 존재로, 화자를 대신해 슬픔과 그리움을 임금에게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두견’은 청각적 이미지와 연결되고 있다.

① ‘기러기’가 자연적 배경이고, ‘두견’이 인격이 부여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두견’이 부정적 정서를 촉발한다고 할 수 없다.

④ ‘기러기’, ‘두견’ 모두 화자와 대립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가), (나) 모두에서 시상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10.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④

[B]와 [C]는 모두 특정한 계절적 소재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④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① ‘새’는 화자의 정서를 촉발하는 자연의 일부이다.

② 원문의 경우 ‘山多從北轉’과 ‘江自向西流’가 유사한 통사 구조로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11.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심층적 이해 및 감상

정답 ②

<보기>에서는 이 작품은, 작가인 조위가 무오사화로 인해 유배되자 자신의 비분의 심정을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는 형식으로 노래한 작품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옥황향안(香案) 전에 지척에 나아 앉아’ 사되는 ‘홍중예 쌓인 말씀’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분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추리해 볼 수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홍중예 쌓인 말씀’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뿐 아니라 죄에 대한 참회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12. 내용 이해를 통한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④

<보기>에서는 자신의 참모습을 잃고 살아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 ㉠~㉢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을 찾기 위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 집 근처 작은 소나무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지문에서는 이 나무도 처음에는 산에 있는 여느 나무들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배어 없애고 끌어당겨 구부러지고, 휘게 하고 하는 과정, 즉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과정을 거쳐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은 소나무 본래의 성질을 잃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소나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로 인해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은 집 근처 작은 소나무의 현재 모습을 사람들이 아름답고 기이하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은 바로 앞 문장의 ‘곧은 본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과

에 대한 무지가 조래할 수 있는 폐해는 오히려 '한 생원'과 '구장'과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길친농장 산림관리인 강태식'은 8·15 직후, 남은 범이 없 어지고 새로운 영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일인인 길친 이가 해준 위임장을 가지고 '영남'이라는 별목 주인에게 멧 갓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대의 혼란을 틈타 제 잇속을 챙긴 약삭빠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해방기 국가의 토지 정책에 대해 "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 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라고 말하는 '구 장'과는 달리 "그런 놈의 범이 어딴 말인가? 그래, 누가 그 려게 마련을 했는구?",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아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야?"라고 말하는 '한 생원'의 대립을 통해, 국가의 토지 정책이 민중들의 입장에 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작가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출

[17~20] 지문 해제

영상언어의 특징

영상언어가 지니는 특성을 의미론적 측면과 구문론적 측 면에서 살펴보고 있는 글이다. 의미론적 측면에서 영상언어는 도상성과 지표성을 지니 는데, 도상성은 영상언어가 실제 대상의 외양을 모방해 내 는 능력을 말하고, 지표성은 인과관계를 통해 예측되는 기 호적 특성을 말한다. 그리고 구문론적으로 영상언어는 문 자언어보다 비결정적이데, 이는 영상언어가 해독 이전에 느낌과 정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언어의 비 결정성 혹은 모호성으로 인해 영상언어는 해독의 범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관객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며,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17.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상황への 적용 [정답 ②]

[A]에서 영상언어의 도상성은, 단순히 사실의 재현에 있지 않고, 카메라 앵글, 이미지 크기, 조명 등의 '영상적 기법'과 색 체, 전체 구성, 추상적 모양 등의 '형식적·스타일적 특성'에 의 해서 창의적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②에서는 '모델의 얼굴을 정면으로 촬영하여 외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지.'라 며 사실 재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②는 영상언어의 도상 성과 거리가 있다.

- ① 이미지 크기의 '영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친근감 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③ 독자에게 열정적인 성격을 전달하기 위해 색체의 '형식 적·스타일적 특성'을 활용하려는 경우이다.
④ 카메라 앵글이라는 '영상적 기법'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감

정을 움직이려는 경우이다.

⑤ 행복한 내면심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조명의 '영상적 기법'을 활용하려는 경우이다.

18. 핵심 개념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적용 [정답 ⑤]

④ '도상성'은 영상언어가 실제 대상의 외양을 모방해 내는 능력을 말하고, ⑥ '지표성'은 관계를 통해 예측되는 기호적 특성을 말한다.

(가)는 '노란 은행잎'을 보고 '가을'이 왔음을 느끼고 있으 므로, '노란 은행잎'은 '가을'과의 관계를 통해 예측되는 기호적 특성, 즉 지표성(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 또한 '머구 림'과 '비'의 인과관계에 의존하는 기호적 특성을 지니므로 지 표성(⑥)을 지닌다.

그리고 (다)의 '한반도 지도'는 실제 대상의 외양, 즉 우리나라 전체의 형태를 모방한 것이므로 '도상성' (④)을 지닌다.

하지만 (라)의 '교통신호등'과 '주행을 멈추고 정지해야 한 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④, ⑥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주행을 멈추고 정지해야 한다'는 것 과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교통신호등의 적색불이다.

19. 세부 정보의 이해를 통한 추론 [정답 ②]

지문에서 설명한 영상언어의 비결정성에 대해 이해했는지 를 묻는 문항이다. 지문에서는 영상언어가 비결정적이기 때문 에 관객에게 해독 이전에 느낌과 정서로 다가가(⑤) 그 의미 가 바라보는 관객에 따라 매우 상이할 수 있고(④), 해독의 범 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관객의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장점 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영상언어가 비결정적 이라는 점은 바라보는 사람의 참여의 폭을 넓혀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므로 수용자인 관객과 영상의 객관적 거 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②).

- ① 영상언어가 비결정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해독의 범위가 열 려 있다는 것이므로 관객이 자신이 해독한 의미를 드러내 기 위해 독창적인 방법의 동영상 편집도 가능하다.
③ 표현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뜻 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일을 함축이라 하는데, 영상언어의 비결정성은 영상언어의 의미가 바라보는 관객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해독된다는 것이므로 함축적이라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의미가 모호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20. 문맥적으로 교체 가능한 어휘의 선택 [정답 ①]

③은 문맥상 영상 이미지가 대상과의 유사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③은 '기억이 되살아 나거나 잘 구상되지 않던 생각이 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은 ①'환기(喚起)하다'이다. 이는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다.'의 의미를 가지

기 때문이다.

- ② 추론(推論)하다 : 미루어 생각하여 논하다.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다.
③ 상정(想定)하다 :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하 다.
④ 모색(摸索)하다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헤갈할 수 있는 방법 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다.
⑤ 구성(構想)하다 : 앞으로 이루려는 일에 대하여 그 일의 내 용이나 규모, 실현 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 리 생각하다. 예술 작품을 창작할 때, 작품의 골자가 될 내 용이나 표현 형식 따위에 대하여 생각을 정리하다.

언어

[21~24] 지문 해제

담화 직시

이 글은 직시(直視)의 종류 중 '담화 직시'에 대하여 '조용 (照應)'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표현 가운데 어떤 대상을 직접 지 시하는 것을 '직시(直示)'라고 하는데, 직시는 무엇을 지시 하느냐에 따라 담화 직시와 장소 직시, 시간 직시로 나뉜다. 담화 직시는 담화의 어떤 부분을 직접 지시하는 것으로, 시 간 직시나 장소 직시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실현되는 경우 가 많으며 '이, 그, 저'가 사용되는데, 화자 자신의 발화에는 근거리 표현인 '이'를 사용하고, 화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발화에는 원거리 표현인 '그'나 '저'를 사용한다. 그런데 담 화 직시는 '조용(照應)'과 구별되는데, 담화 직시가 담화 속 의 언어적 표현 그 자체를 지시하는 데 반하여, 조용은 언어 적 표현이 가리키는 실제인 '지시체'를 지시한다. 조용 표현 은 앞에 나온 선행사와 지시 대상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공 시지적 관계에 있다고 하며, 선행사가 앞에 오고 그것을 지 시하는 조용 표현이 뒤에 오는 조용을 전방 조응이라 하고, 뒤에서 언급할 대상을 앞에서 미리 지시하는 조용 표현을 후방 조응이라고 한다.

21. 글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④]

지문에서는 담화 직시와 조용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식을 각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④이다.

① '직시'의 전방적 특징을 설명하고, '담화 직시'를 구체적으 로 살펴본 후, '담화 직시'와 '조용'을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대상의 변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22. 핵심 개념의 이해를 통한 적용 [정답 ⑤]

(라)를 보자. '그것'은 '길 한 가운데에 수북이 있는 소똥'이 라는 언어적 표현 그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길 한 가

운데에 수북이 있는 소똥'이라는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실 체인 '지시체', 즉 '소똥'이라는 사물 자체를 지시한다. 따라서 (라)의 '그것'은 담화 직시가 아닌 조용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가)의 '여기'와 '거기'는 담화의 일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 라 언어적 표현이 가리키는 실체를 지시하므로 담화 직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화자 자신의 발화에는 근거리 표현인 '이'를 사용하고, 화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발화에는 원거리 표현인 '그'나 '저' 를 사용한다. 이는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에 의한 것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 '그것' 대신에 '이것'을 쓰면 발화의 내용 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가 좀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세부 사항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적용 [정답 ⑥]

④'공지시적 관계'는 앞에 나온 선행사와 지시 대상이 일치 하는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 ①~⑤를 차례대로 선행사와 지 시 대상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도도록 한다.

- ① '이것'은 '반지' 자체를 지시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선행사 와 지시 대상이 일치한다. 따라서 공지시적 관계에 있다.
② '그것'은 '지갑'을 지시한다.
③ '저것'은 '폭포수'라는 지시체를 지시한다.
④ '여기'는 '반장 선거'를 지시한다.
⑤ '그것'은 앞 문장인 '장비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용돈 을 받는다.'라는 언어적 표현을 지시한다. 즉, 선행사를 지 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표현 그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다. 따라서 공지시적 관계에 있지 않다.

24.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어휘의 선택 [정답 ⑥]

담화 직시는 시간 직시나 장소 직시에 사용하는 표현을 이 용하여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므로 ㉠의 '오로'는 '어 떤 일의 수단·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 다. ③은 의사가 내시경을 이용하여 질병을 발견했다고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의 '오로' 또한 수단·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①은 변화의 방향, ②는 시간, ④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이유, ⑤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쓰였다.

현대시

[25~28] 작품 해제

(가) 김수영, 「파밭가에서」

이 시는 '묵은 사랑'이 아닌 '새로운 사랑'을 희망하면서 이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 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새로운 사랑을 얻는 다는 것이 묵은 사랑을 떨치는 것임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관련된 의미를 시각화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반성을 통해 자신의 본질적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그린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이 플라스틱 물건처럼 가볍고 가치 없는 부정적 존재로 느껴질 때 지금은 사라진 텀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어 한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달궂고 버리고 갈아서 시퍼런 무쇠나이나 꼬부랑 호미 같은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되고 싶은 것이다. 화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통념이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질 때 대장간 벽에 걸려 있는 무쇠나이나 호미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다) 김기택, 「다리 저는 사람」

다리를 절며 지하철 역사를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세롭게 인식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서는 우람하게 서 있는 기둥 같은 사람들과, 그 사이를 ‘춤추는 사람처럼’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 외에는 없다. 시의 앞부분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뜻뜻하게 걸지만 다리를 저는 사람은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시의 뒷부분에서 성한 두 다리를 가진 사람들은 기둥처럼 서 있지만 다리를 저는 사람은 그 사이를 홀로 팔랑팔랑 지나간다. 이 시는 위에서 언급한 동적인 시어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느낌이 정적(靜的)이다. ‘요란하고도 기이한 걸음’을 ‘지하철 역사’가 격막해지도록 조용하게 걸었다, ‘함께 소리 죽여 힘차게 흔들렸다’, ‘뭇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려 주고 있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팔랑팔랑’이 이러한 인상을 만들고 있다.

25.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①

(가)에서는 ‘붉은 파발’과 ‘푸른 새색’, ‘얻는다는 것’과 ‘잃는 것’의 대조를 통해 목은 사랑을 떨쳐 내고 새로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플라스틱 물건’과 ‘무쇠나’, ‘호미’와의 대조를 통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다)에서는 ‘뜻뜻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과 ‘춤추는 사람처럼’ 다리를 저는 사람의 대조적 이미지를 통해 다리 저는 사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대조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6. 작품에서 시어가 가지는 구체적 의미 이해

정답 ③

(가)에서 화자는 ‘목은 사랑’이 벗겨질 때, ‘목은 사랑’이 움직일 때, ‘목은 사랑’이 누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붉은 파발의 푸른 새색을 보아라.’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즉 화자는 붉은 파발에 돌아나는 푸른 새색을 보며 푸른

새색과 같은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목은 사랑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㉔‘푸른 새색’은 (가)에서 화자가 얻고자 하는 새로운 사랑을 의미하는 동시에 화자에게 새로운 사랑을 얻는다는 것이 목은 사랑을 떨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㉕‘시퍼런 무쇠나’은 (나)의 화자가 자신의 삶이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대장간에 가서 바뀌고 싶어 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이 ‘시퍼런 무쇠나’은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달궂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솥물에 가는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 완성된 존재, 즉 고통 속에서 단련되어 가치 있게 변화된 존재이다. 따라서 ㉖는 화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가 함축되어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㉔와 ㉖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㉓이다.

27. 소재의 성격 이해를 통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정답 ④

④를 보자. ‘대장간’에서 무쇠나이나 호미와 같은 다양한 생활 도구를 제작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질 때 텀보네 대장간을 찾아가 무쇠나와 호미가 되고 싶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대장간’은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장간’을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작가의 태도를 보여 주는 공간으로 이해한 ④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① 화자는 자신이 한껏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에는 규정된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화자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껴질 때 텀보네 대장간을 찾아가 무쇠나와 호미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텀보네 대장간’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장간’이 있던 ‘홍은동 사거리’가 이제는 사라진 곳이라는 점에서, ‘홍은동 사거리’는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가 사라진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⑤ ‘대장간’에서는 쇠를 뜨거운 불에 달궂고 망치로 때리고 하는 수많은 담금질을 통해 연장을 만든다. 화자는 그 연장을 중 무쇠나와 호미가 되어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고 하고 있다. 이는 자신도 무쇠나이나 호미처럼 수많은 단련을 통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화자는 ‘대장간’에서 지열한 자기반성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8.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구체적 이해

정답 ②

<보기>에서는 (다)가 영화의 스틸컷 기법을 응용한 작품이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 대상을 제외하고 그 외의 사람과 사물들의 시간과 속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배제된 대상은

후경화(後景化)되고 화자가 주목한 대상은 주제로 부각된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참고하여 (다)를 보면, (다)에서 주목한 대상은 ‘춤추는 사람처럼 보’이는 ‘다리 저는 사람’이다(㉑). 이 대상에 대해 (다)에서는 ‘뭇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려 주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서 스틸컷 기법을 적용하여 부각하고 있는 것은 ‘뭇 걷는 다리 하나’라기보다 그 다리로 인해 흔들리는 ‘온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②는 적절한 내용이 아니다.

① 화자가 주목하는 것은 다리 하나를 사용하지 못하여 ‘춤추는 사람처럼’ 몸 전체가 흔들리는 사람이다.

③ ‘기둥이 되어 우람하게 서 있는 것은 ‘뜻뜻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보기>에서는 (다)가 ‘다리 저는 사람’을 부각하기 위해 나머지 사람들의 시간과 속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후경화(後景化)하였다고 설명하였다.

④ 독자들은 다리 저는 사람의 특정한 모습인 ‘춤추는 모습’에 주목하여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몸이 온전한 사람들을 표현한 ‘뻑뻑한 기둥’에 비추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

⑤ 다리 저는 사람이 ‘뻑뻑한 기둥’처럼 서 있는 사람들 사이를 ‘홀로 팔랑팔랑 지나가는’ 모습으로 작품을 마무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대상의 특정한 모습에 강한 인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소설

[29~32] 작품 해제

작자 미상, 「최고운전」

신라 시대 최고 문장가인 최치원의 일대기를 허구화하여 영웅적인 인물로 등장시킴으로써 민족적 우월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고 있는 작품이다.

아버지인 최충이 문장 수령으로 부임했을 때, 금궐지가 부인을 납치한다. 하지만 부인의 기지로 금궐지를 죽이고 돌아와 여섯 달 만에 주인공 최고운을 낳는다. 최충은 아들이 금궐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길거리에 버린다. 하지만 선녀가 아기를 돌본다. 후에 최충이 최고운을 데려오려 했으나 최고운은 이를 거절한다. 하루는 아이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의 천자에게까지 들려 천자는 제주 있는 두 학사를 신라로 보내 그 아이와 금궐주를 겨루게 하였다. 그런데 두 학사가 패배하고 돌아오자 크게 노한 황제는 석환(石函)에 달걀을 넣고 초로 밀봉하여 신라에 보내 석환 속에 든 물건을 알아내어 시를 짓도록 한다. 이에 최고운은 이미 그 내용물인 달걀이 병아리가 되었다는 시를 지어 보내고, 이를 본 황제는 놀라 최고운을 죽이려고 중국으로 불러들인다. 중국에 도착한 최고운은 황제의 간계를 모두 물리친다. 때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나 최고운이 「토황소격문」을 지어 황복을 받으니, 천자의 신하들이 시기하여 최고운을 죽이려고

되만 섬에 유배 보낸다. 하지만 고운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다. 신라로 돌아온 최고운은 왕이 벼슬을 내려 주었으나 끝내 사양하고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다.

29.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

정답 ②

제시된 부분에서, 최충은 버린 자식을 데려오기 위해 아내의 말을 따라 병이 든 척하였고, 아내는 무당을 시켜 고을 아전들에게 최충이 병이 낫기 위해서는 아이를 데려와야 한다는 말을 퍼뜨렸다. 이에 아전들이 놀라 최충을 찾아왔고 최충은 자연스럽게 ‘이적’ 일행에게 아이를 데려오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정황상 ‘이적’은 최충이 병이 든 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적이 아이에게 ‘아버님이 중병에 걸리셔서 도련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라고 한 말은 이적이 아이를 살두하기 위해 하는 말이라는 하지만 이적도 사실이라고 믿고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②는 제시된 부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30.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제시된 부분의 [중략 줄거리] 이전 부분을 보면, 최충이 아이에게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돌아간 후 하늘에서 수천 명의 선비가 내려와 저마다 자신의 학문을 아이에게 앞 다투어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최고운전」의 전기적 요소로, 초월력의 힘이 작용하여 주인공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①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비들이 아이에게 문장을 가르친 것은 강대한 것과 약소한 것의 역전된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1.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④

[A]에서 ‘아이’는 고사를 인용하여 진나라 왕은 자기의 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미녀가 낳은 아이를 버리지 않았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금궐지의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금궐지의 자식이라며 버렸다고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아버지가 자신을 버린 것이 ‘잔인무도한 일’이라며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아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① ‘아이’는 여불위의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고 있다.

② ‘아이’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던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아버지는 처음부터 나를 금궐지의 자식이라며 버렸으니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일이었어? 그대 놓고 이제 와서 무슨 면목으로 나더러 부모를 찾아버리는 것이요?’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아이가 상대의 잘못된 행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의 마지막 문장에서 사용한 방식이다.

32. 상황에 맞는 속담의 이해

정답 ①

[B]에서 '아이'는 중국의 천자가 보낸 두 학사와 더불어 글 제주를 거루고 있다. 이때 아이는 뛰어난 글제주를 통해 학사들의 말문이 막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와 글제주를 거루고 있는 학사들 역시 '재주 있는'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B]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속담은 ①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말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 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뜻을 지니기 때문이다.

- ②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테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③ 잘되리라고 믿고 있던 일이 어긋나거나 믿고 있던 사람이 배반하여 오히려 해를 입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앞에도 높은 산이고 뒤에도 높은 산이라는 뜻으로, 이리저리 도저히 도 못할 난처한 지경에 이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되면 약한 자도 마지막 힘을 다하여 반항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문

[33~36] 지문 해제

정약용, 「통색의(通塞議)」

인제 등용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글쓴이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문제가 생긴 이유가 출신 지역 간, 계층 간 차별을 근거로 온 나라의 인재를 모두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버리지 않은 사람은 오직 문벌 좋은 수십 집뿐인데 이마저도 어떤 사건에 관련이 되어 버림받은 자가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학문이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일에 마음을 쓰기 않기 때문에 인재가 있어도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숨어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동서남북을 따지지 않고, 멀거나 가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리지 않게 하여 중국과 제도를 같게 하는 것입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개성, 강화도 사람도 버린 자요, 관동과 호남 사람도 반쯤 버린 자요' 부분을 통해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3. 글쓰기 전략의 파악

정답 ④

지문에서 글쓴이는 '온 나라의 인재를 다 뽑아 올려도 오히려 부족할까 염려인데, 하물며 그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은 버리는 것입니까? 온 나라 사람들은 다 가르치고 키우더라도 백성들을 일으키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그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은 내쳐버리는 것입니까?'라며 설의적 표현을 통해 인재 등용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있다.(7).

셋째 문단의 '김일제는 휴도에게 태어났으니 서쪽 오랑캐

사람이고 ~ 소강절은 형제 세 사람의 성(姓)이 각각 달랐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에서는 중국의 인제 등용과의 비교를 통해 지역과 신분에서 따른 차별의 모순점을 부각하였다.(1).

그리고 글쓴이는 기존의 인제 등용 제도가 지역과 신분 등을 차별하여 숨어 있는 인재들을 뽑아 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 후 이에 대한 시행 방안으로 '무재이능과(茂才異能科)' 설치를 제안하였다.(2).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인재 등용 방안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지 않으므로 '르'은 글쓴이가 사용한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34. 내용의 분석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①

첫째 문단의 '소민(小民)은 그 버린 자이고, 중인(中人)도 버린 자입니다. ~ 버리지 않은 사람은 오직 문벌 좋은 수십 집뿐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건에 관련이 되어 버림받은 자가 많습디다.'라는 내용을 통해 인재 등용에 있어 차별이 심했으며 문벌 좋은 집 출신자도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는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지문을 통해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넷째 문단의 '서자도 흥문과 관련이 되게 하자는 논의가 때로는 시행되기도 하고'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첫째 문단의 '북인과 남인은 버린 것은 아니나 버린 사람과 같고'라는 내용을 통해 당파의 대립이 인재 등용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제일 좋은 방법은 동서남북을 따지지 않고, 멀거나 가깝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가리지 않게 하여 중국과 제도를 같게 하는 것입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개성, 강화도 사람도 버린 자요, 관동과 호남 사람도 반쯤 버린 자요' 부분을 통해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 지역에 따른 차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5. 자료에 근거한 비판적 이해

정답 ⑤

<보기>에서는 봉당의 출발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용인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려는 심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A]에서는 '무재이능과'를 설명하고 있는데, 무재이능과는 서북 지방과 개성, 강화도의 중인 계층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정경에 밝고 행실이 뛰어나며 학문과 정치에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의정부나 흥문관, 예문관, 규장각, 사간원의 신하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고, 지방 수령들도 각자 제능 있는 사람들을 아는 대로 추천하도록 한 후 서울에서 경진이나 시부(詩賦), 논책을 시험하여 열 명을 뽑아 과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보기> 입장에서 [A]의 '무재이능과'를 본다면, 그 추천 대상을 관리들이 자신이 속한 당의 힘을 기를 목적으로 편파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⑤의 비판은 적절하다.

36.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어휘의 선택

정답 ②

㉠'발다'는 문맥상 '어떤 일에 대하여 잘 알아 막히는 데가 없다.'의 의미로 쓰였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②이다.

- ① 예측되는 미래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다.
③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
④ 분위기, 표정 따위가 환하고 좋아 보이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데가 있다.
⑤ 불빛 따위가 환하다.

기 술

[37~40] 지문 해제

비행 시 작용하는 힘의 원리 및 비행기의 조종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비행기가 비행할 때 작용하는 힘과 비행기의 조종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비행기가 비행할 때 동력과 양력, 항력, 추력이 작용하며, 이 네 가지 힘들이 균형을 이룰 때 비행기가 안정을 이루며 비행할 수 있고,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비행기는 상승 또는 하강하거나 가속 또는 감속한다.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는 양력이 필요한다, 양력 발생은 공기(유체)의 속도와 압력은 반비례한다는 베르누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비행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조종면이라고 하는데, 비행기의 조종면으로는 도유날개, 승강기, 방향기가 있다. 이것들을 조종사의 의도대로 조작하는 장치가 조종간과 페달이다. 그리고 조종면 외에도 플랩이 있는데, 이는 날개의 안쪽에 위치하는 고(高)양력 장치이다. 조종사는 이러한 조종면들을 이용하여 비행기의 기수를 올리기도 하고, 비행기를 좌우로 기울게도 하며, 회전하기도 한다.

37. 글의 설명 방식 이해

정답 ③

지문에서는 비행기가 비행할 때 작용하는 네 가지 힘은 무엇이고, 각각은 어느 때 발생하며, 양력 발생은 어떠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 후 비행기의 조종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설명은 ③이다.

38. 세부 내용의 이해를 통한 구체적 적용

정답 ⑥

㉠은 위로 향하는 양력이고, ㉡는 아래로 향하는 중력이다. 그리고 ㉢은 공기의 저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항력이고, ㉣는 항력을 이기고 비행기를 전진하게 하는 추력이다. 그런데 비행기가 하늘로 오르기 위해서는 중력을 이기는 양력이 필요하고, 비행기를 전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력을 이기는 추력이 필요한데 이는 엔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중력(㉡)과 항력(㉢)은 자연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력(㉠)과 추력(㉣)은 비행기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첫째 문단의 '이러한 네 가지 힘들이 ~ 힘의 균형이 깨질 때 비행기는 상승 또는 하강하거나, 가속 또는 감속한다.'라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지문에서 날개 아랫면의 높아진 압력과 윗면의 낮아진 압력 사이의 차이만큼 양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39.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

정답 ⑥

<보기>에서는 비행기가 정면 방향으로 수평 비행을 하다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왼쪽 위 방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라고 하고 있고, 조종면의 작동 방향은 넷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비행기를 좌우로 기울게 하려면 좌우 도유날개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의 비행기처럼 왼쪽으로 기울려면 우측 도유날개를 아래쪽으로 내리고 좌측 도유날개를 위쪽으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조종사가 비행기의 기수를 올리기 위해 조종간을 뒤로 당겨 승강기를 위로 꺾으면 ~ 비행기 앞부분이 들리게 된다.'라고 하였으므로 비행기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승강기를 위쪽으로 조종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방향기의 경우는 조종사가 발로 페달을 밟아 조종한다. 오른쪽 페달을 밟면 방향기가 오른쪽으로 회전하게 되므로 ~ 기수가 오른쪽으로 회전한다.'라는 내용을 통해 비행기가 왼쪽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는 방향기를 왼쪽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비행을 위한 조종면의 작동 방향이 모두 바르게 배열된 것은 ⑤이다.

40. 단어의 형성 원리 이해

정답 ③

<보기>에서는 ㉠'윗면'이 순 우리말인 '위'와 한자어인 '면(面)'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로, 앞말과 뒷말 사이에서 'ㄴ' 소리가 한 번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을 보이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성격이 동일한 것은 ③이다. '제삿날'은 한자어인 '제사(祭祀)'와 순 우리말인 '날'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이면서 앞말과 뒷말 사이에서 'ㄴ' 소리가 한 번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 [제 산날]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① '잊음'은 순 우리말끼리의 결합이다. ② '헛수'는 순 우리말 '혜'와 한자어 '수(數)'의 결합이긴 하지만 [혜수/헛수]로 발음되므로 'ㄴ' 소리가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

- ④ '예삿일'은 한자어 '예사(例事)'와 순 우리말 '일'의 결합이긴 하지만, [예 : 산닐]로 발음되므로 앞말과 뒷말 사이에서 'ㄴ' 소리가 한 번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을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
⑤ '전셋집'은 한자어 '전세(傳賈)'와 순 우리말 '집'의 결합이긴 하지만, [전세집/전센집]으로 발음되므로 'ㄴ' 소리가 한 번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